

<2018년 11월 6일 화요일 새벽, 주 말씀>

1. 하나님도 성령님도 “<때>를 지켜라.” 말씀하셨다. <때>에 따라서 그에 해당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하듯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3. <시간>도 보면, ‘하나님의 것’이 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날이니라.” 하셨다.
4. <학교>도 ‘학교 시간’이 있어서 그때에 맞춰 공부를 한다. 그 시간을 안 지키면, 그때 가르치는 내용을 모르니 다시 배워야 한다. 이와 같이 <자기 시간>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도 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5.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고 싶으냐. 그러면 ‘기도’ 하여라.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 시간인지 가르쳐 달라고 하여라.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6. 선생이 하나님과 성령님을 위해서만 시간을 쓰겠다고 하고 24시간을 몽땅 드리고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니, 하나님과 성령님은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일들을 하셨다. 그러면서 깊은 말씀도 주시고, 앞날에 관한 것도 말씀해 주셨다. 어느 때는 어디에 무엇

이 있다고 하며 어떻게 찾아내라고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누가 이렇게 됐으니 신경 써서 편지도 주라고 하시며 관리하게 하셨다. 또 어느 때는 “이렇게 하도록 하자.” 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어느 때는 노래 가사를 주시면서 “이렇게 불러라.” 하고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과 성령님께 시간을 다드리니, 이와 같이 하나님도 성령님도 대화를 해 주시면서 은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심정 일체 되어 ‘하나님과 성령님의 몸’ 이 돼서 행하게 하셨다.

7. 왜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을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8. <하나님의 시간>과 <자기의 시간>이 있다. <자기>가 존재해야 하니, 자기를 위해 쓰는 시간도 있는 것이다.

9.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 이듯,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 이 있다. <시간의 십일조>다. 이를 지켜야 저마다 희망이 이뤄진다.

10. <시간의 십일조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시간의 축복’ 을 주셨다. 고로 ‘축지’ 를 하면서 행한다. <축지>는 ‘빨리 걷는 것’ 도 있지만 ‘머리가 빨리 돌아가서 그만큼 빨리 한다는 것’ 이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바로 알아버리고, 즉시 시작해 버린다.

11.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는 비밀이다. 그 시

간에 아무도 모르는 어떤 비밀을 말해 주실지, 혹은 줄 것을 주실지, 혹은 기도하게 하실지, 혹은 병을 고쳐 주실지, 혹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모른다. 이 비밀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행하는 자>만 알게 된다. 고로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라.

12.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평소에 지켜야 된다. 그래야 때에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로 은밀히 행하게 하시어 줄 것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13. <하나님의 시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시간>이니, 불려다 놓고 가만히 계시지를 앓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면, 하나님은 바로 입을 열어 “잘 있었느냐.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 그것을 오늘 해결해 줄게.” 하시며 이야기해 주시고, 반갑게 대해 주시고,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다.

14. 절대 <하나님의 시간>을 지켜 행해보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어 행하게 하시고, 원하는 것을 주셨다.

15. <때>와 함께 해결된다.

16. <자기 시간>은 ‘도전의 시간, 과정의 시간’이라 할 일이 많다. 마치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씨름하듯 하는 시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보다 ‘깨끗한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에도 악인들과 싸움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평온한 시간’이다.

17.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가면 평안하게 된다.”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과 때>에 대해 깨우쳐 주셨다. 그리고 <민족의 앞날>에 대해 깨우쳐 주시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심판할 것’은 심판하신다고 하며 말씀해 주셨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은 세상의 모든 부정, 부패들을 두고 더욱 기도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과감히 행하셨다.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아라. <청산되는 일>을 하셨고, <해소되는 일>을 하셨고, <조건 ? 대가를 치루는 일>을 하셨고, <그때 민족도 사정없이 심판해 버리는 일>을 하셨다.

18. 모르면, 그냥 “고생 좀 했지.” 하고 끝난다. 그러면 그런 고통이 또 온다. <육신이 세상에서 살 때>는 ‘보장된 천국의 세계’가 아니다. 그러니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것을 거울삼고 잘 해야 된다. 그러면 ‘평탄한 길’로 계속 가게 된다.

19. <때>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 지난 10년 동안 청산하는 기간에 우리나라 생기고 처음으로 일어난 일도 많다. 우리나라가 생기고 처음으로 엄청난 동물이 죽는 일도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의 바로 왕이 <하나님이 택한 자, 모세>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무지로 대하니, 하나님은 그때 ‘동물 재앙, 우박 재앙’ 등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은 <이 시대>도 그러했다.

20. 사람들이 ‘때’를 모르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모르니, 예

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연의 때를 알면서 어찌하여 이 <때>를 모르느냐. <때>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는데, 지금이 그 때다. <때>를 알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 하셨다. <때>와 <시대>와 <징조>를 알고, 분별하고, 깨달아야 한다.

21. <때>가 그리도 귀하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를 만났을 때>가 중하다.

22. <때>를 지켜 버릇해야 된다.

23. <때> 지나면, 그 주관권에서 얻을 것을 얻지 못한다.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성약 1000년> 기간이다. 그 기간에 얻지 못하면, 거기서 끝난다.

24. <때 지났는데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는 자들>을 보아라. 안타깝지 않느냐. 하루에 한 대밖에 안 다니는 차가 이미 지나갔는데, 아직도 차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때를 지키고 얻고 기뻐하며 사는 자들>을 보아라.

25.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바로 시작하신다. 고로 그 계산을 못하면 안 된다.

26. <하나님의 시간>을 잘 지켜 행하여라.

27. <자기의 때>, <시대의 때>, - 이때는 ‘골든타임의 기간’이다. 고로 이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환난과 핍박이 있으나

해야 된다.

28. 뽀박한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안 하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 해야, 해결된다.

29. <악평자들>이 뽀박하고 억울하게 한다고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휴거>도 못 이루고, ‘사망’에 묻혔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다고 안 하고, 뽀박이 있다고 안 한 자들>은 너무나도 억울한 것이다. 행하고 봐야 된다.

30. <그 일로 인한 뽀박과 어려움>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쓰이는 바람으로 알아야 된다.

31.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들의 뽀박이 있어도, 그 역시 자기를 다스리면서 이겨야 된다. 이기지 못하면, 좋은 날이 왔을 때 영광을 못 누리게 된다. <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32.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씨를 뿌린 사람>은 무조건 때가 되면 황금별판을 만들고 만다. 고로 <가을>이 되면 ‘황금별판’을 이루듯이, <하나님과 같이 끝까지 한 자>는 ‘황금 천국, 이상 세계’를 이루게 된다.

33. <읍>도 어려움을 참고 견뎌기에 결국 과거에 손해를 본 것을 다시 복직하고 얻게 됐듯이, <이 시대>도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끝까지 했기에 그동안 손해가 간 것을 복직하고, 얻을 것을 얻게 되었다.

34. 어려움 때문에 못 하고,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못 했다고 그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주>는 늘 말씀하기를, “주를 믿어라. 그로 인해 너도, 네 가정도 구원을 받는다.” 하지 않았느냐. 다 끝나고서 그들이 “내가 이럴 줄 알았냐? 몰라서 그랬지. 내가 먼저 알았으면 목숨 걸고 내게 말해 줘야지.”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고로 핍박하는 자들로 인해 못했으면 자기만 억울한 것이다.

35. 핍박과 환난, 어려움을 다 이기고 왔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결국 끝까지 하니, 하나님은 이긴 자들에게 줄 것을 다 주셨다. 안 했으면, <사망권>으로 가서 원망하며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믿고 오기를 잘했다는 것이다.

◎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하고 마칩니다.